

# 19세기 말 ~ 20세기 초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

황수정\*\*

### 〈차례〉

1. 머리말
2. 시대적 사명과 회한
3. 지리적 환경의 수용과 자부
4. 문학적 교류를 통한 풍류와 아취
5. 맺음말

## 1. 머리말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라는 시간적 개념과 ‘구례’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한 역사적 혼란의 시기였다. 변화와 격변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한문학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문학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었으며, 문인들의 작품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활발하게 창작 및 시적 교유가 이루어졌던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례는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에 해당한다. 때문에 타 지역과의 교통이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편이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소외받고, 칩거하는 인물들이 살고 있었다. 이러한 면모들은 오히려 구례인들에게 있어 강건한 기상을 갖추고, 난관극복의 의지를 키울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다.<sup>1)</sup> 따라서 문학을 통해서도 비판적이면서 저항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이 가져다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지리적 환경은 구례의 역사와 문화 형성에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문학활동은 한말 사대가 중 한 사람으로 구례에서 칩거하였던 梅泉 黃玟(1855~1910)과 그의 문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리고 川社 王錫輔(1816~1868)와 그 일가의 한문학활동은 당시 구례 지역 문학활동에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들과 교류하며 창수하고 만남을 이룬 중앙 문인 및 외지 문인들이 구례를 노래한 바가 있다.<sup>2)</sup> 이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1) 19세기 말~20세기 초 구례 지역은 나라의 격변을 고스란히 겪어내며 시대의 질곡을 감내해야 했다. 1894년 구례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경상도 단성사람으로 광의면 사적동에 우거하고 있던 巫人 출신이 구례집주가 되어 봉기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구례 지역 출신 인사들도 이에 항의하여 의병봉기를 시작했다. 그 세력과 성망이 대단하여 담양, 영광, 장성, 창평, 광주, 동북 등지에서 크게 활약하며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1910년에는 매천 황현이 망국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절명시를 남기고 순절하였다. 또한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구례에서도 봉기가 있었다. 구례 장남에 광의면 지천리에 사는 노학자의 주도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구례에서는 산발적으로 만세운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친일행동을 경고하는 벽보가 붙기도 하였다(구례군지편찬위원회, 『구례군지』 상, 2005, 446~473쪽 참조).

2)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 구례에서 작시활동을 하며, 그 흐름을 주도하였던 시인 일가 및 개별 시인들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외지 시인으로서 이들과 각별한 교류를 나누었던 시인들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천 일가: 梅泉 黃玟, 石田 黃瑗, 白樵 黃巖顯, 蘭史 黃渭顯

천사 일가: 川社 王錫輔, 鳳洲 王師覺, 素琴 王師天, 小川 王師瓚, 雲樵 王粹煥, 玉泉 王京煥 등

지촌 일가: 芝村 權鳳洙, 石荷 權鴻洙

개별 시인: 二山 柳濟陽, 南坡 成蕙永, 西堂 尹鍾均, 鳳溪 高墉柱, 倉山 金祥國, 壺山 朴文鎬 등

외지 시인: 滄江 金澤榮, 寧齋 李建昌, 畊齋 李建昇, 蘭谷 李建芳, 石亭 李定稷, 海鶴 李沂 등

이 외에도 매천의 유지를 받들었던 구례 지역의 시인들은 詩社를 형성하며 20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4-A00104).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작가론 및 작품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sup>3)</sup> 그리고 지리산과 관련한 연구 성과도 있다.<sup>4)</sup> 그러나 구례 지역과 직접 연계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sup>

기 말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은 주로 일제의 감시를 피해 문집을 간행하고 시회를 여는 등 구국운동의 차원에서 作詩에 임하였다. 그들이 결성한 모임으로는 龍湖亭詩契(1917), 梅月吟社(1927), 雲興亭詩社(1924), 方壺詩社(1927) 등이 있다.

- 3) 이병기, 『梅泉詩研究』, 보고사, 1995.  
기태완, 『黃梅泉詩研究』, 보고사, 1999.  
정양완, 『梅泉 黃玆의 上元雜咏을 읽고서』, 『雨田辛鎬烈先生 古稀紀念論叢』, 창작과비평사, 1983, 167~185쪽.  
장선희, 『梅月吟社 研究』, 『한국언어문학』 47집, 한국언어학회, 2001, 203~225쪽.  
김정환, 『梅泉詩派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황수정, 『매천 황현의 문학 연구』, 『19세기 한문학의 재조명』, 한국한문학회 7차 전국학술대회, 2004. 11. 27.  
———, 『梅泉 黃玆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 『梅泉詩의 表現樣相』, 『고시가연구』 19집, 한국고시가학회, 2007, 253~275쪽.  
———, 『西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345~368쪽.  
———, 『川社 王錫輔 詩 연구』, 『한문교육연구』 3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309~336쪽.  
———,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경』, 『고시가연구』 23집, 한국고시가학회, 2009, 357~383쪽.
- 4) 한국한시학회에서 ‘한국한시와 지리산’이라는 특집기획으로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다.  
김혜숙, 『智異山의 漢詩의 反響』,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5~50쪽.  
박수천, 『智異山의 寺刹 題詠 漢詩』,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51~82쪽.  
김남기, 『지리산 일대의 문화유적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83~106쪽.  
최석기, 『浮查 成汝信의 智異山遊覽과 仙趣傾向』,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107~137쪽.
- 5) 다만 서울 지역과 한문학을 연계하여 한국한시학회에서 ‘조선시대 서울의 문화공간과 한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연구성과를 올린 바 있다.  
우웅순, 『壬辰亂 前後 서울의 文化空間과 漢詩』,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45~64쪽.

따라서 본고는 당시 구례의 지역정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문화를 재해석하여 한시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작가 및 시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과 지역의 문화, 그리고 정서를 일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과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문화콘텐츠의 저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지역 문인들의 詩情과 더불어 시적 미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의 특수한 문화연구의 저변이 될 것이며, 한시문학사의 주도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 2. 시대적 사명과 회한

구례는 호남에서 고죽 최경창과 옥봉 백광훈 이후에 시로써 다시 부흥하였던 곳으로 볼 수 있다.<sup>6)</sup> 곧 16세기 호남 문단의 뒤를 이어 한시로써 활발하게 문학활동이 이루어진 곳이다. 당시 한문학인들은 국가적 존망과 개인적 자존이 위협받는 지극히 불안한 시대를 공유하였다. 따라서 본

심경호, 『조선후기 서울의 遊賞空間과 詩文學』,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65~104쪽.

기타 지역과 한시 및 한문학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여운필, 『東萊地域 漢詩의 몇 가지 면모』,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105~148쪽.

성범중, 『蔚山地域 漢詩의 제 양상』,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149~206쪽.

진재교, 『이조후기 문예의 교섭과 공간의 재발견』, 『한문교육학회』 21집, 한문교육학회, 2003, 499~530쪽.

- 6) “湖南, 古以節義稱, 而其士大夫, 往往工于詩, 故又稱詩人之鄉. …… 或庶乎有聞, 而二百年來, 操觚之家類, 皆淫哇冗陋, 求其一二之彷彿乎曩時所稱崔白諸公, 而不可得. …… 湖南之東, 有鳳城縣, 蓋於全省, 彈丸地也. 自王川社先生出, 而全省, 以詩鄉, 推鳳城.” (黃玆, 『川社詩集序』, 『梅泉全集』 卷二, 79~80쪽)  
“湖南之詩, 自白玉峰·崔孤竹·林白湖諸公之後, 沈衰無聲, 餘二百年. 及夫近世, 川社王錫輔, 崛起於前, 而梅泉黃玆, 大鳴于後, 則湖南之詩, 復聞於域中.” (崔益翰, 『序』, 『西堂集』)

장에서는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했던 구례 시인의 사명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시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정신과 미의식을 알 수 있다. 먼저 구례의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駐馬孤城畫角悲 외로운 성에 말을 멈추니 화각소리 슬프고  
 昔人於此赴艱危 옛 사람이 이곳에 나라 어려울 때 달려왔네.  
 石關義士空留蹟 석주관 의사는 속절없이 자취만 남겼고  
 華寺胡僧尙有碑 화엄사 큰 스님은 여전히 비석이 남아 있네.  
 歲暮英雄堪下淚 세모에 영웅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天寒風雲又多時 겨울은 찬데 풍운은 한동안 계속되었다네.  
 草萊殉節今寥寂 잡초 같던 순절이 이제는 적막한데  
 江水東流夕景移 강물은 동으로 흐르고 석양은 옮겨가네.

尹鍾均, 「鳳城懷古」(『酉堂集』卷一)

이 시는 酉堂 尹鍾均(1861~1941)<sup>7)</sup>의 작품으로 1903년에 쓴 것이다. 구례에서의 옛 일을 회고하고 있다. 봉성은 구례의 옛 지명이다.<sup>8)</sup> 구례가 역사적 풍운과 함께 하였던 세월을 돌아보고 있다. 즉 구례의 역사적 상흔과 세월의 유장함을 담고 있다. ‘石關義士’는 1597년 정유재란 때 항전하다 순사한 구례 사람인 王得仁 父子 · 李廷翼 · 韓好誠 · 梁應祿 · 高貞

7) 순천 태생인데, 1890년 경 황현과의 교류 이후에 구례에서 살게 된 인물이다. 현재도 구례에는 그의 제자 김종필이 마련해 주었던 옛 집[수죽헌]이 거의 폐가가 된 채 남아 있다. 유당 인물에 대해서는 김정환의 『梅泉詩派研究』(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86~101쪽)와 황수정의 「酉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345~368쪽) 등을 참조할 수 있다.

8) 구례읍 뒷산이 ‘鳳’의 형상이어서 명명한 것이다. ‘求禮’라는 지명은 백제 때 사이가 나뉘던 두 정승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조정에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두 사람이 벼슬을 그만두고 노년에 우연히 타향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처럼 타향에서 아는 사람은 만난 것에 반가움을 표하게 되었고, 이후 사이가 좋아졌다.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원수가 서로 예를 찾은 곳이라고 ‘求次禮’라 바꾸었다.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예를 구하는 곳이라고 ‘구례’라 하였다(『구례군지』 중, 617쪽 참조).

喆 · 吳琮 등 일곱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외부의 지원도 끊긴 상태에서 대항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의 항쟁은 죽기를 결사한 처절한 싸움이었고, 시신마저도 수습하기 어려운 악전의 고투였다.<sup>9)</sup> 이들의 저항정신은 구례인들에게 가슴깊이 인식되었다. 어려운 순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죽음까지 불사한 비장한 정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華寺胡僧’은 화엄사의 벽암선사를 말한다. 화엄사는 544년 연기 조사가 창건한 이후 몇 번의 증축을 거쳤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탔었다. 이를 벽암선사가 1630년에 다시 세우기 시작하여 7년만인 1636년에 완성한 것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의 불변성을 그리고 있다. 이로써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구례인들이 감내하고 지켜내야 했던 비감함이 전해진다. 구례인들의 저변에 구축된 강개한 정신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난 역사의 상흔을 통해 오늘의 나아갈 바를 인식하고 시인으로서의 자세를 돌아본 것이다. 비록 지난 사적이 현재는 쓸쓸한 옛 터로 남아 있지만, 그곳에 담긴 정신만은 계속 전해짐을 그렸다. 이는 당대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후대까지 계승해야 할 사명임을 표출한 것이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찾고자 시대적 사명의식을 표출한 시가 바로 梅泉 黃玟이 1910년에 쓴 「絶命詩」<sup>10)</sup>이다.

鳥獸哀鳴海岳嘯 짐승들 슬피 울고 산하도 찡그리니  
 槿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계가 이미 망해버렸네.  
 秋燈掩卷懷千古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천고의 역사를 생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선비 되기 어려워라.

曾無支厦半椽功 큰집을 지탱하는 서까래 반만큼 공도 없었으니

9) 황수정, 『梅泉 黃玟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4~125쪽 참조.  
 10) 본고에서는 매천의 절명시 4수 중에서 그의 사명의식과 회한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된 세 번째, 네 번째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황수정, 위의 논문, 136~139쪽 참조).

只是成仁不是忠 다만 인을 이룰 뿐 충은 아니네.  
 止竟僅能追尹穀 마침내 윤곡을 따름에 그쳤으니  
 當時愧不躡陳東 당시에 진동을 따르지 못함이 부끄럽구나.  
 黃玆, 『絕命詩』(『梅泉全集』卷一)

매천은 이 시를 통해 시대적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민을 드러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이미 죽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는 절명시 첫수에서 ‘난리는 몇 번씩 겹쳐오고 백발만 더해가니, 몇 번을 죽으려 해도 뜻을 이루지 못했네(亂離滾到白頭年 幾合捐生却未然).’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식인으로서 난세 속에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고민과 반성적 성찰을 표출하였다. 그는 「遺子弟書」에 이르기를, “내가 가히 죽어야 할 만한 의무는 없지만, 국가가 선비를 기른 지 5백년에 나라가 망하는 날을 당하여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위로는 하느님이 주신 몇몇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평소 읽던 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가만히 죽어 가면 진실로 통쾌하리니, 너희들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sup>11)</sup>고 하며 절명의 의미를 토로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나라를 이끄는 지식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단호한 행동이었다. 후인들에게 비감과 더불어서 서늘한 절의를 느끼게 하였다. 즉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형상화한 이 시에서 지식인으로서의 깊은 책임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이는 자발적인 사명의식의 소산이었으며, 강한 자존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인으로서의 한계에 다다른 자신의 행동에 회한을 담고 있다. 즉 중국에서 절개를 표출하였던 두 인물인 윤곡과 진동을 대비하고 있다. 자신은 윤곡의 자세에 그쳤다고 하면서, 진동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맞서

11) “吾無可死之義，但國家養士五百年，國亡之日，無一人死難者，寧不痛哉。吾上不負皇天秉彝之懿，下不負平日所讀之書，冥然長寢，良覺痛快，汝曹，勿過悲。”(김택영, 『本傳』, 『梅泉全集』卷一)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을 드러냈다. 그러나 매천은 한평생 시로써 강개한 의지와 구국의 신념을 드러냈으며, 결국에는 스스로 망국에 맞서 절명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처럼 단호하고 강개한 정신은 당시 구례 지역 민을 비롯해서 호남 등 전국적인 애통과 비감으로 전해졌다.<sup>12)</sup> 이후에도 구례에서는 시인을 중심으로 활발한 작시는 물론이려니와 거의 애국운동에 가까운 문집편찬 및 보급운동이 이어지곤 하였다. 즉 매천 사후 그의 문집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경의 감시망을 피해 모금운동을 펼치고 전파하였기 때문이다.<sup>13)</sup> 이로써 당시 구례 시인들은 시대적 고충과 역사적 전환기에 속에서 작시활동 및 문학활동 등으로 민족적 자존의 의지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며 깊은 회한으로 절명에 이른 또 한 사람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매천의 아우 黃瑗이다. 당시 비통한 나라사정과 이에 대응하였던 구례 시인들의 역량을 표출하였다.

燕賊不能生萬年 燕賊이 능히 만년 동안 살지 못하고  
 遜之文章天下傳 遜之의 문장은 온 천하에 전해지네.  
 四海九州滄寧梅 四海 九州에 창강, 영재, 매천은  
 俱遭烏臺無一全 모두 烏臺를 만나 온전한 사람이 없네.  
 我家酷禍太甚焉 우리 집의 혹독한 화가 심해서

12) 황매천 및 관련인사 『문묵체편』에는 다음과 같은 제문들이 실려 있다. 韓龍雲의 『哭黃梅泉』, 李根汶의 『哭黃梅泉』, 李駿圭의 『祭黃梅泉文』, 林炳瓚의 『祭黃梅泉文』, 孫秉暉의 『悼梅泉先生』, 趙晉奎의 『次梅泉遺詩哭輓』

13) “梅泉先生之遺集，不可不刊，鄙人，忘其地下德薄，敢以微物，爲之先焉。”(金澤榮, 『梅泉集募刊記』, 『文墨萃編』)  
 “右敬通子，吾黨僉君子，梅泉先生之文章節義，如彼卓絕，而只緣世道之紛紜，人事之忽劇，尙委箱篋，未克夸耀，誠爲儒士之歎也。金滄江澤榮氏，知音者也。而精選國朝文章十家，評梅泉曰 堪居第三云，豈不誠稀世之寶哉。”(王粹煥·朴暢鉉·尹鍾均·權鳳洙·李炳浩, 『通文』, 『文墨萃編』)  
 “刊金將爲二千，而昨日，被查於本郡警察署，告以送金三百五十圓中二百三十二圓。黃瑗，出一百十八圓，門生知舊補助云者，以募金不得自由故也。先生，須默會焉，前頭送物，甚是關念，奈何。”(王粹煥, 『與金滄江書』, 『文墨萃編』)

八域一朝如鷹鷂 팔역이 하루아침에 매와 수리같이 되었네.  
 如何今日更盡收 어찌하여 오늘 다시 모두 거두려 하는지  
 欲滅人間遺落篇 세상에 남아 있는 책까지 없애려 하는가.  
 有之不送況無有 있어도 보내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없음이라  
 家家伏生腹如船 집집마다 伏生의 배가 선박과 같다네.  
 腹中藏物鬼莫出 배속에 담아 있는 물건은 귀신도 꺼낼 수 없으니  
 第待雨霽生青天 다만 비가 개고 푸른 하늘 오기를 기다리네.  
 當時急務不在詩 당시 급한 일이 詩에 있지 않은데  
 豎子有眼看西邊 너희들도 눈이 있으면 서쪽을 바라보아라.

黃瑗, 「自總督府求送梅泉集以詩代謝」(『江湖旅人詩稿』)

滄海滔滔日倒流 창해는 도도히 날마다 거꾸로 흐르는데  
 蒼生平救竟無謀 창생을 편히 구제하려 해도 마침내 계책이 없네.  
 空老人間無一補 속절없이 늙어가는 인간 하나도 보탬이 없으니  
 不如先去帝京遊 먼저 떠나가 제경에서 노는 것만 못하네.

國已邱墟民又亡 나라는 이미 빈터 되고 백성도 망하였으니  
 何心忍辱守書床 무슨 마음으로 치욕을 참으며 책상을 지키라.  
 小事營營如大事 작은 일도 서둘거늘 큰일처럼 하니  
 丈夫志氣愧田光 장부의 지기로 田光에게 부끄러울 뿐이네.

黃瑗, 「遺詩」(『文墨萃編』上卷)

이 시는 황원(1870~1944)의 작품이다. 황원의 호는 石田이고, 말년에는 스스로를 江湖旅人이라 하였다.<sup>14)</sup> 매천의 아우로 평생 형을 따르며 그의 遺志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다. 그는 詩業을 전업으로 하면서 『매천집』 등을 간행하고 보급하는 데 일조하였다. 당시 일제의 압박에도 창

씨개명에 응하지 않았으며 평생을 야인인 듯 살아간 인물이다. 석전에게 있어 형은 부모이자 스승이었다. 따라서 인생의 큰 나침반 같은 존재로 믿고 따랐다. 매천 또한 동생인 석전에 대한 특별한 정을 시로써 그려내곤 하였다.<sup>15)</sup> 석전은 형의 작품들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으며 구례 문인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매천과 교유했던 인물들과도 친분관계를 맺으며 문학활동 및 시작을 하였다.

위의 첫 번째 시를 보면 매천 사후 그의 문집을 출판하는 데 검열에 관계된 것을 시화한 것이다. 실제로 매천집 검열본을 보면 ‘삭제’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주로 우국적인 내용이거나, 나라를 빛낸 영웅들의 활약상을 다룬 작품들이다.<sup>16)</sup> 따라서 석전은 ‘어찌 오늘 다시 거두어가서 세상에 遺落된 글 없애려 하는가.’라고 항변하듯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채워져 있는 시편들을 모두 삭제하지는 못한다고 비유하고 있다. 이처럼 시로써 시대를 대변하고 대응하는 강개함이 전해진다. 또한 ‘第待雨霽生青天’이라고 하였다. 이는 가슴속에 새긴 비장한 마음ियो, 당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다. 비가 개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푸른 하늘이 나타남을 새기면서 의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두 번째 시를 보면 한평생 서생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을 비감으로 그리고 있다. 즉 지식인으로서 자국의 망국에 대한 대처를 고민하고 분주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치고 만 것이다. 석전이 이 시를 쓴 것은 1944년 그의 나이 74세 때이다. 젊은 시절부터 형인 매천의 강개함을 보아왔고, 그의 작품들을 보고 자랐

15) 매천이 쓴 동생 석전에 대한 시는 「除夜憶病弟」, 「季方連生三女之餘以九月十七日舉一男聞報志喜」, 「季方以近體四首見寄依韻和之」, 「季方又寄詩來刻燭走和」, 「煉秋石寄季方」 등이 있다.

16) 『梅泉全集』卷一에 실린 작품 중 삭제 도장이 찍힌 시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忠武公龜船歌」, 「孤雲吹笛臺有感」, 「聞斷髮令下訪小川夜話」, 「寒食道中」, 「碧波津」, 「義妓論介碑」, 「萬壽聖節錦土城主設宴……賦五十二韻」, 「洪南史槌」, 「聞變三首」, 「五哀詩」, 「血竹」, 「哭勉菴先生」, 「哀梁草溪」 등이다.

14) 황수정, 앞의 논문, 158쪽 참조.

다. 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의 유업을 계승하였고, 나름의 방식으로 시로써 애국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 더 이상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형과 마찬가지로 절명시를 쓰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구례 시인들은 시대에 맞서 강한 사명 의식과 자존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시대의 흔들림과 새로운 문학양식의 대두로 인하여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했고, 때론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며 회한에 빠지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고뇌와 절망,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개한 정신과 비장미는 그들의 시 속에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 3. 지리적 환경의 수용과 자부

구례는 지리적으로 극한의 지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구례 지식인들은 중앙정계 진출의 어려움과 소외감을 극복해야 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천혜자연의 혜택을 자부하며 시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들은 국가적 말기의 증상을 감내하며 극복해야 했고 한문학인으로서 입지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시인들이 시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모순된 현실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유를 찾은 것이다. 여기에는 구례 토착인으로서의 애정과 자긍심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당대를 논하는 시인으로서의 자부와 자존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은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그 일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여기서 매천 황현의 시를 살펴보겠다.

清夜相携花下語 맑은 밤에 서로 손잡고 꽃 아래서 노래하니  
圓蟾已復現山河 둥근 달이 어느새 벌써 산하에 나타났네.

涼添麻麥垂垂露 삼과 보리 드리운 이슬에 서늘한 기운이 더하고  
風掠池塘灑灑波 바람은 연못의 넘실대는 물결을 치네.  
諸子論懷宜有述 모든 그대들 회포를 논하여 기술함이 있음이 마땅하니  
良辰回首易經過 좋은 때 머리를 돌리니 쉽사리 지나가네.  
曲欄西畔千絲柳 굽은 난간 서쪽에 일천 가닥 버들이  
一倍婆婆影更多 한 배는 더 하늘거리니 그림자가 더욱 많네.

黃玿, 「苟安室夜話」(『梅泉全集』卷一)

이 작품은 1901년 매천의 나이 47세에 쓴 것이다. 구안실<sup>17)</sup>은 매천이 창작과 교육에 전념하였던 곳이다. 출생지였던 광양을 떠나 삶의 전환점을 구하고자 구례 간전면 만수동 산골짜기에 터를 잡은 것이다. 벼슬에 대한 미련을 접으면서 시인으로서의 삶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그를 깊은 산중으로 칩거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매천은 32세가 되던 해인 1886년에 만수동으로 옮긴 후, 구안실을 짓고 16여 년간을 살았다. 「구안실기」를 보면 서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집은 겨우 세 칸으로 이루었으나, 둘은 나누어 노복들이 각각 불을 때고 살게 하였고 나머지 동쪽 방은 독서하는 곳으로 하였으니 심히 좁고 누추하여 서실이라 일컫는 것과 같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속 온돌에 들어가면 대자리는 서늘하고 창은 밝아서 마치 거울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sup>18)</sup>

17) 구안실은 간전면 만수동 계곡 동쪽에 있었다. 매천이 칩거하면서 찾아오는 후학들을 위해 지은 것이다. 그 옆에는 一笠亭이라는 정자도 있었다. 그런데 매천이 1902년 월곡으로 이거하면서 구안실과 일립정이 불에 탔다고 전해진다. 이후에 빈터로 남아 있었으나, 2005년 홍수로 인하여 그 터마저 유실되어 지금은 자취도 찾기 어렵게 되었다.

18) “屋成僅三間，分其二，使臧獲之異爨者居之，羸其東，爲讀書之室。蓋甚窄而陋，書室之稱，殆不類。然入其中，埃溫，而簾涼窓明，如對鏡。”(황현, 「苟安室記」, 『梅泉全集』卷四, 109쪽)

매천에게 있어 서실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았다. 구차한 것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위 시에서도 맑은 밤의 정취를 한적하게 읊조리고 있다. 때마침 둥근 달이 산하를 비추면서 시심을 더욱 정화시키고 있다. 깊은 산골 마을에 어스름 해지는 저녁 기운을 청량하게 그리고 있다. 이는 ‘垂垂’와 ‘灑灑’이라는 접어를 통해 아롱지는 이슬방울과 넘실대는 물결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경은 충만한 시감과 일치된다. 따라서 경물과 시인의 감성이 일치되는 정경일치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그곳을 찾는 ‘諸子’의 회포는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심은 ‘千絲柳’로 그리고 ‘影更多’로 전이되어 충만한 시정으로 나타났다. 한적하면서도 풍성한 자연환경의 표출은 서실에 가득한 시의로 드러났다. 그림 같은 서실의 모습과 상황설정은 차분하면서도 열의에 찬 교육현장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尋眞暇日向沙門 진경을 찾아 한가한 날에 절문을 향해가니  
寺下春江十里村 절 아래 봄 강물 십리 거리의 마을이라.  
洞霧鎖來迷失路 동구의 안개가 잠겨 있어 혼미하여 길을 잃었고  
澗花浮去漸窮源 시냇가에 꽃이 떠서 가니 점점 근원을 다 찾아갔네.  
木魚撞送雲間響 목어는 쳐서 구름 사이에 소리를 보내고  
松鶴棲留塔上痕 소나무의 학은 머물러 탑 위에 흔적을 남겼네.  
寄語方壺列仙子 방호산의 여러 신선에게 부탁 말 보내노니  
好分餘瀝紫霞樽 남은 이슬로 빛은 자하준 술을 잘 나누세.

王師覺, 「春日華嚴寺」(『開城家稿』卷二)

이 시는 鳳洲 王師覺(1836~1895)<sup>19)</sup>의 작품이다. 화엄사에서 봄날을

보낸 정경을 읊었다. 수련에서는 사찰을 찾은 목적을 제시하였다. 한편에서는 ‘迷失路’와 ‘漸窮源’이라 하여 진리에 도달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근원까지 파고들고자 하는 시인의 심경을 그렸다. 이를 ‘안개로 싸인 골짜기’와 ‘꽃으로 물든 시냇물’의 형상에 투영하여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한편까지는 보여지는 사찰의 모습에 시인의 정서를 담고자 하였다. 즉 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사찰의 모습을 극대화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撞’과 ‘棲’의 대비를 통해 ‘動’과 ‘靜’의 미감을 살렸다. 이로 인한 울림과 흔적을 그렸다. 그러면서도 시인의 호탕한 성격을 드러낸 것이 미련 하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신선과 교유하듯 거침없는 태도를 그려내고 있다. 자신도 신선이 된 듯 친근한 교분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고자 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누리는 여유로움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선취가 담긴 삶의 추구는 봉주의 부친이면서 매천의 스승이기도 했던 川社 王錫輔(1816~1868)의 시에서도 나타난다.<sup>20)</sup> 구례의 왕씨 가문은 일찍이 뛰어난 재주와 명망을 얻은 바 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들에게 작시는 삶의 중심이었고,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었다. 이들은 세속의 물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였다.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에 맞서지 않고, 시속의 얽힘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한적한 여유로움과 낭만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깊은 산중에 있기를 자처하였고 자연과 벗하며 합일을 꿈꾸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당시 구례 시인들의 삶의 한 방편이 되었던 것 같다. 이처럼 구례 시인들은 지리적 환경을 시에 적극 수용하고 그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였다. 다음은 구례 지역에서 자라는 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 시를 살펴보겠다.

金鰲山下文江澳 금오산 아래 문강 가에

家家有樹高於屋 집집마다 나무가 있어 지붕보다 높네.

19) 川社 王錫輔(1816~1868)의 장남으로 자는 任之이다. 어려서부터 場屋에서 두루 이름을 얻으며 학문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한 인물이다. 매천이 30여 년에 걸쳐서 스승으로 모신 인물이기도 하다(장선희, 앞의 논문, 208쪽 참조).

20) 황수정, 「川社 王錫輔 詩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3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320~325쪽 참조.

春深葉葉訝許同 봄이 깊으니 잎마다 같은 것이 이상하고  
 蓬戶盡在綠雲中 초가집이 모두가 푸른 구름 속에 있네.  
 五月六月江雲暖 오월 유월 강 구름이 따뜻할 적에  
 枝枝倒垂青蚪卵 가지마다 거꾸로 푸른 올챙이 같은 알을 드리웠네.  
 風高霜落動秋色 바람이 높고 서리가 내림에 가을빛이 동하니  
 二分彤霞一分墨 이폰은 붉은 노을빛이요 일폰은 먹색이네.  
 持刀削皮老手捷 칼을 들고 껍질을 깎는데 노련한 솜씨가 빠르고  
 十串百顆成一貼 열 꼬챙이 백 알이 한 접이 되네.  
 掛之簷端曝秋陽 처마 끝에 걸어서 가을볕에 말리고  
 貯之瓮裏被粉霜 동이 속에 저장하면 분 같은 서리가 덮여지네.  
 沉水一宿便自解 물에 담가 하룻밤 채우면 문득 스스로 풀려  
 珍品往往充官廩 진품은 왕왕 관청에 올리기도 하네.  
 滿船載下河東市 배에 가득 싣고 하동시장에 내려가면  
 千金一夕傾鄉里 천금을 하루 저녁에 받아 향리가 떠들썩하네.  
 丸都之李江陵橘 환도의 오얏과 강릉의 귤도  
 到此不敢專其美 여기에 오면 감히 그 맛을 독차지 하지 못하리라.

尹鍾均, 「筏村墨柿」(『酉堂集』卷二)

이 시는 1916년에 쓴 유당의 작품이다. 구례 벌촌<sup>21)</sup>의 먹감에 대한 것이다. 금오산은 현재 鰲山이라고 부른다. 문강은 구례의 남쪽 섬진강을 가리키는 말이다. 감나무가 많은 마을의 정경을 그렸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감나무가 푸르러 울창해지고 감이 열리면서 익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꺾임으로 상품화하여 시장에 내다 팔 때의 자부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에서 자연물산의 풍족함과 사람들의 여유로운 웃음을 느

낄 수 있다. 순차적인 자연의 흐름과 역동적인 인간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다.

구례는 예로부터 맑은 공기와 물을 비롯하여 천혜자연의 혜택이 풍부한 곳이다. 주변의 명승지뿐만 아니라 귀한 토산물로도 그 이름을 얻곤 하였다. 대표적으로 ‘섬진강의 은어’, ‘잔수의 백채’ 등이 구례의 지리적 특성과 맞물려 유명한 토산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시로써 형상화되어 그 특징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섬진강의 은어는 맑은 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조정에 진상되기도 했다. 잔수, 즉 섬진강의 배추 또한 당시에 물이 많고 싱싱하기로 유명하여 타 지역에서도 구입하러 오는 발길이 이어졌다.<sup>22)</sup> 이 시에서는 벌촌의 아름다운 환경과 기후조건 속에서 재배하는 감과 그것을 꺾임으로 만드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 맛에 대한 것은 지역의 어떤 특산물에도 결코 뒤지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징적인 면들을 註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군의 남쪽 오산의 아래 문강의 굽이에 있으니, 또한 죽연리라고도 하며 집집마다 감 네다섯 그루가 있는데, 서리가 내린 뒤에 그 열매의 작은 것이 거위 알과 같다. 꼭지로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삼분의 일이 검은 색이요, 무르녹지 않았을 때에 따서 깎아서 꺾어 껍에 꿰어 말려서 백 개를 한 접이라고 하는데 오래 동이에 담아두면 그 서릿발이 분과 같고 깨끗한 물에 담가서 하룻밤을 지내면 스스로 풀려 씨가 없고 찌꺼기가 없어질 수 있다. 그 맛이 참으로 다른 감과 달라 하동 시장에서 팔면 가격이 잔수의 배추와 서로 같다.<sup>23)</sup>

21)筏村은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竹淵마을을 이르는 말이다. 죽연 마을은 ‘벌벌’, ‘범벌(번벌)’이라 통칭하고 있으며, ‘대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은 배 형국이라 마을에 우물을 파지 않고 1992년 우물을 팔 때까지 섬진강 물을 식수로 이용하였다(『구례군지』 하, 162쪽 참조).

22) 이에 대한 시로는 윤중균의 「잔수백채」, 「문강은어」 등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황수정의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경」(『고시가연구』 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63~364쪽)에서 참조할 수 있다.

23) “在郡南鰲山下, 文江曲, 亦曰 竹淵里, 家家有柿四五樹, 霜後其顆之小者, 如鵝卵, 自蒂至顆, 三分一墨色, 未醱前, 摘而削之 串柎而乾之 百顆, 謂一規, 久貯於瓮, 其霜若粉, 沉淨水一宿, 自解無核, 滓可去, 其味, 信甘於他柿, 賣于河東市, 價額與潺水白菜,



이는 고장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자긍심이 바탕이 된 것이다. 자신의 고장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시로써 형상화하였다. 이는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자의 시선이 아니라 함께 어울렸던 일상생활의 미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구례 시인들은 생활상의 면모를 때로는 교유으로 때로는 선취로 그리고 고장에 대한 자부심 등으로 자신들의 삶을 담아내곤 하였다. 여기에는 한적한 낭만과 사실적인 미감을 찾을 수 있다.

#### 4. 문학적 교류를 통한 풍류와 이취

본장에서는 교유와 산수유람 중에 교감되는 멋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구례 지역의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을 당대 시인의 초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만남의 자리로 주로 애용되었던 누정 및 정자,<sup>24)</sup> 그리고 사찰 등과 어우러진 구례인의 풍류를 교감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시모임 등의 결성을 알 수 있고 작시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로써 구례의 모습과 구례 시인들의 삶과 사유, 그리고 멋을 파악할 수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石亭 李定稷(1841~1910)<sup>25)</sup>과의 교감을 노래한 시를 살펴보겠다.

相等.”(윤중균, 『酉堂集』 卷二, 27쪽)

24) 구례 내 소재한 누정 및 정자로는, 봉덕정, 구인정, 반계정 외 구례읍 소재 4곳, 천인정, 영호정, 침류정 외 문척면 소재 3곳, 육노정, 수월정, 일립정 외 간전면 소재 1곳, 용호정, 월화정, 용두정, 호산정 외 토지면 소재 7곳, 취음정 외 마산면 소재 2곳, 압구정, 은행정, 수한정 외 광의면 소재 5곳, 취석정, 관풍정 외 용방면 소재 1곳, 방호정, 운흥정, 벽호정 외 산동면 소재 3곳. 모두 45군데의 누정이 산재하여 있다. 이는 현존하지 않은 곳 10여 곳을 포함한 것이다(『구례누정집』 참조).

25) 석정 이정직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자는馨五이다. 그는 실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詩書畫에 모두 일가를 이룬 인물이다(구사회, 『石亭 李定稷의 詩意識과 文藝論的特質』, 『한국언어문학』 5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5, 43~68쪽 참조).

一棹澄江溯自東 한 노를 저어 맑은 강을 동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니  
藤蘿側畔逕微通 넝쿨 가에 지름길이 가늘게 통해 있네.  
野人送酒春如昨 시골 사람이 술을 보내니 봄이 어제와 같고  
隣里傳餐日過中 이웃마을에서 음식을 보내왔는데 해는 중천을 지났네.  
農候預占梅子雨 농사철 기후는 미리 매화철 비로 짐을 치고  
老來偏怯棟花風 늙어감에 문득 동화철 바람이 겁나네.  
論詩如入山深淺 시 논함에 마치 산 깊고 얕음에 들어간 것 같으니  
白首終期與子同 늙어서도 마침내 그대와 같이 하기를 기약하네.

黃玆, 『携石亭往兔洞』(『黃玆全集』 上)

이 시는 매천의 나이 43세인 1897년의 작품이다. 구례 토동<sup>26)</sup>에서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매천의 시에는 토동 관련 시가 많이 있다.<sup>27)</sup> 토동에는 예로부터 서실이 많았고, 주변에 오봉산과 계족산 등이 있어 만남과 詩心을 이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산골마을의 정겨움과 벗사이의 친근함이 잘 드러나 있다. 수련에서는 토동마을로 가는 길을 멋스럽게 그려냈다. 섬진강가에 자리한 토동마을의 안온함이 그려진다. 함련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술과 음식을 나누는 정겨움을 그리고 있다. 시골 인심의 여유로움과 풍류를 알 수 있다. 경련에서는 ‘梅子雨’와 ‘棟花風’의 대비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타까움을 그려내고 있다. 매자우는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인 음력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한 동화풍은 춘삼월 경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부는 바람이다. 세월의 변화에 느껴지는 나이 듦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있다. 자연의 변화로 인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써 시인 자신이 세월의 흐름

26) 兔洞은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土金마을이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五鳳歸巢形局으로 피난지였다. 또한 토기가 꼬리를 돌아보는 형국이라 마을 이름을 ‘土顧尾’라고도 하였다(『구례군지』 하, 225쪽 참조).

27) 토동과 관련된 시는 往兔洞, (3회), 兔洞道中, 『兔洞雨中』, 『自兔洞至鰲山僧舍宿』, 『兔洞雨中聞錦士將發賦三絕句却寄』, 『五峯石壁』, 『五峰村岸訪小川不遇與諸生話懷次唐律韻』 등이 있다.

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만남은 1895년 석정이 54세 때 매천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매천의 나이는 41세였다. 그 후 서로 교분을 쌓으며 자신의 문학적 이론과 시심을 나누었던 것이다. 석정과 매천은 시문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을 제기하며 격렬한 논쟁을 펼친 바도 있다. 그 일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석정과 詩道를 다투었으니, 석정은 大家를 취하고, 매천은 名家를 취하였다. 석정을 평하여 말하길, “커도 쓸모가 없으니, 썩은 박과 같다.”고 하였다. 이에 석정이 말하길, “썩은 박도 박이다.”라고 하였다. 매천은 자평하며 “호남의 담배씨처럼 작아도 하나하나 잘 여물어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고 하니 서로 웃고 말았다.<sup>28)</sup>

이처럼 두 사람은 자신의 견해 차이는 분명히 밝히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격려와 존중은 아끼지 않았다. 매천은 석정의 끊임없는 독서열과 학문하는 자세를 크게 인정하기도 하였다.<sup>29)</sup> 그에 대한 작품을 통해 관심과 우의를 각별하게 그리기도 하였다.<sup>30)</sup> 위 시의 미련에서도 이들의 깊은 존중과 신뢰를 읽을 수 있다. 진솔한 교유를 통한 친근함이 전해진다.

이밖에도 小川 王師瓚(1846~1912)<sup>31)</sup>이 쓴 석정에 대한 시를 보면, ‘정으로 혼연히 서로 부르며, 어여삐 망년지교 하고자 하네(情欣相爾汝

28) “與石亭爭其詩道, 石取大家, 梅取名家. 評石曰 大而無用, 如腐匏. 石曰 雖朽, 匏則匏矣. 自評曰 雖少如南草種, 箇箇成實, 坵之有聲, 相笑而罷.” (황원, 『追錄補遺』, 『梅泉全集』 卷三, 45쪽)

29)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54~55쪽 참조.

30) 석정과 관련된 시는 「歲暮懷人諸作李石亭定稷」, 「石亭十竹圖」, 「石亭見過弊居贈古詩次其韻仍有唱酬」, 「送石亭至冷泉歸路有吟」, 「韻海內存知己天涯若比鄰十字寄壽石亭老友」 등이 있다.

31) 川社 王錫輔(1816~1868)의 셋째 아들이다. 자는 贊之이다. 매천과는 친교를 맺으며 서로 수장한 바 있다. 황현의 「和小川論詩六絕」(『황현전집』 상, 91~92쪽)을 보면 두 사람의 작시태도를 알 수 있다.

媿媿欲忘年.)’라고 하여 각별했던 시우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한다. 소천은 또한 ‘어찌하면 石友를 맞이하여, 술이 다하도록 한 번 취해볼까(何當邀石友 一醉罄深樽).’<sup>32)</sup>라고 하며 허심탄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매천이 젊은 나이에 상경하였을 때 교유하며 쓴 시를 살펴보겠다.

漢陽城北百盤盤 한양 성 북쪽으로 백번이나 돌고 도니  
千疊雄山一竇關 천겹 웅장한 산에 구멍만한 관문이 있네.  
積氣龍騰空翠外 쌓인 기운은 빈산 푸른 빛 밖에 용처럼 날고  
窮途鳥絕白雲間 먼 길에 새는 흰 구름 사이에서 끊어지네.  
如今鎖鑰將誰待 지금은 자물쇠로 잠겼으니 장차 누구를 기다리나  
有此巉巖不可攀 높은 바위와 같아서 가히 오를 수 없네.  
斗酒春風客無事 한 말 술 봄바람에 나그네는 일이 없으니  
重興寺下聽潺湲 중흥사 아래에서 잔잔한 물소리를 들어보네.

黃珪, 『與朴壺山金滄江澤榮游北漢山城』(『黃珪全集』 上)

이 작품은 1882년 매천의 나이 28세 때 쓴 것이다. 매천은 24세 때 秋琴 姜璋(1820~1884)를 만나고자 처음으로 상경하였다. 이후 서울생활을 하면서 중앙의 명사들과 교유하며 자신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 시는 매천이 서울의 북한산성에 壺山 朴文鎬(1846~1918)와 滄江 金澤榮(1850~1927)과 더불어 놀러갔음을 그린 것이다.<sup>33)</sup> 매천에게 있어 창강과의 만남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의 삶과 문학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매천 사후 그의 문집이 중국에 있었던 창강에 의해서 엮어지게 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32) 王師瓚, 『與李石亭定稷訪李海鶴沂途中呼韻』, 『懷石亭』, 『開城家稿』 卷四.

33) 1882년 3월 3일 북한산행의 경험을 滄江과 壺山도 각각 작품을 남겼다. 壺山 朴文鎬는 『遊白雲臺記』를 써서 산행의 과정과 산행을 마친 후 만난 寧齋 李建昌(1852~1898)의 評까지 기록하였다(『壺山集』 참조).

또한 滄江 金澤榮도 『同壺山梅泉遊北漢山城』을 남긴 바 있다(『金澤榮全集』 1, 172쪽 참조).

크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창강과 친교를 맺으면서 매천은 중앙 문단과 향리에서의 시작생활에 풍성한 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험준한 북한산의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함련을 보면, ‘龍騰’과 ‘鳥絕’이라는 비유를 통해 북한산의 기상과 그 높이를 드러내고 있다. 어렵게 오르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신비로운 경치를 절묘하게 묘사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험준한 산행길을 ‘鎖鑰’와 ‘巉巖’으로 표현하여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북한산을 호산은 「遊白雲臺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운경이, “금강산의 비로봉과 망군봉도 이런 험한 데가 없다.”라고 하였다. 우림이, “송악산과 천마산도 이곳에 비하면 마치 평지와 같다.”라고 하였다. 내가, “속리산의 문장대와 관악산의 연주대도 이런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sup>34)</sup>

매천, 창강, 호산 등 세 사람이 백운산의 험준함에 크게 놀라는 모습을 그렸다. 각기 자신이 다녀 본 산중에 가장 험한 산임을 토로하고 있다. 가볍게 시작한 산행, 막상 오르고 보니 그 높고 깊음에 탄복한 것이다. 그래서 다하지 못한 산행을 나그네는 술자리로 풀어내고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해소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산행도 낭만으로 채우고 멋스러운 만남으로 키워서 문학적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이밖에도 매천은 창강과의 인연을 시로써 그리면서 우의를 드러낸 작품을 많이 썼다.<sup>35)</sup> 김택영 또한 구례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그리면서 살기 좋은 곳을 밝히기도 하였다.<sup>36)</sup> 그리고 매천은 경사에서 교류하였던

香農 申正熙(1833~1895)가 임자도로 유배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 차 찾아가며 그 소회를 그리기도<sup>37)</sup> 하였다. 여기에 매천과 유당이 영재 사후에도 강화도 사곡까지 찾아가 조상하며 시로써 우의를 표출한 시도 있다.<sup>38)</sup> 이처럼 매천을 비롯한 구례 지역 시인들은 중앙의 시인들과도 인간적인 정을 나누며 교류하여 그 멋과 풍정을 노래하였다.

絶壁層巖左右橫 절벽과 층진 바위가 좌우로 가로놓여 있으니  
水明山紫舊龍城 물은 환하고 산은 자색이니 옛날엔 남원 땅이었네.  
靈靈巒岫千秋色 신령한 봉우리는 천추의 빛을 지녔고  
汨汨川流萬古聲 골골한 강 흐름은 만고의 소리라네.  
河相遺碑長保蹟 하정승의 남긴 글은 기리 자취를 남겼고  
芝峰吐月最多情 지봉의 밝은 달은 가장 정다워라.  
雲興詩社觴詠趣 운흥정 시모임에 술 마시고 시 읊는 취미가  
永久無湮繼後生 영구히 끊어지지 아니하여 후생에게 이어지리라.

李善淳, 「雲興亭」(『求禮樓亭集』)

이 시는 구례군 산동면 시상리에 있는 운흥정에 대한 것이다. 산동면의 유지들이 1926년에 세운 것으로 주로 시회 장소로 활용되었다. 李善淳의 호는 卓山이다. 그는 방호정시사에도 참석하여 현판을 남긴 바 있다.<sup>39)</sup> 정자 내에는 기문과 시문 등 85개의 현판이 있다. 정자 아래의 석벽에는 ‘雲興社’라고 새겨져 있다. 1930년에 작성된 「운흥정기」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해 봄에 남원 견두산 아래 사는 학사 박해장을 방문하여 옛날의 도를

34) “雲卿曰 金剛之毘盧, 望軍, 無此險也. 于霖曰 松嶽天馬, 視此猶平地也. 余曰 俗離之文藏, 冠岳之戀主, 無是也.” (박문호, 「遊白雲臺記」, 『壺山集』)

35) 매천의 김택영 관련 시는 「聞金滄江去國作」, 「和滄江五絕却寄」, 「春間滄江東還馳書要見至秋余始入都則滄江已歸矣悵然有作」, 「除夜憶滄江」, 「正月二十三日得滄江穀日見寄詩和之」, 「又和滄江寄李方之作」 등이 있다.

36) 김택영의 작품인 「求禮同柳二山濟陽限韻」, 「智異山雙溪寺」 등에 잘 나타나 있다.

37) 황현의 『매천전집』에 「將往智島訪香農公謫居雨中過鶴橋作」, 「點馬磯阻風」 등이 있다.

38) 윤종균, 「己亥四月與梅泉至沙谷追憶寧齋先生酬李畊齋建昇李蘭谷建芳」, 『酉堂集』 卷一.

39) 李善淳, 「題方壺亭」, 『求禮樓亭集』, 135쪽.

이야기하고 현재를 평하였으며, 산수를 이야기하였다. 며칠 간 유숙을 하며 재미를 다지는 즈음에 학사께서 운흥정에 관계된 시구와 장문을 보여 주면서 亭記를 부탁한 것이다. …… 매년 봄가을에 성묘를 하고 남은 시간에 마을 모든 선비들과 더불어 긴 해가 지도록 못 위에서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조렸으니 마음을 비운 그 기상은 기수에서 시를 읊조린 증점과 난정에서 모임에 가진 왕희지와 같은 취지가 있었다. 그러한 인연으로 모임을 맺고 계를 닦으며 이 집을 지어 그 선비들의 노니는 장소로 삼았으니, 이는 참으로 구슬과 같은 복된 지역이다.<sup>40)</sup>

이처럼 지리산의 수많은 골짜기 가운데 하나인 寒川 옆에 위치하여 경승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커다란 암반 위 일부분에 축대를 쌓고 대지를 만들어 정자를 세웠다. 이처럼 정자 아래는 기암괴석이 있고 큰 물웅덩이가 있다. 이를 ‘雲興龍沼’라고 부른다.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가 굽어서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용이 승천하면서 구름을 일으키는 듯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운흥정 맞은편에 ‘河演碑閣’이 있다. 여기에는 용설화<sup>41)</sup>가 전해진다. 위 시에서도 이러한 용소설화를 시화하여 신비감을 더해준다. 운흥정 주변의 빼어난 풍광과 연못을 지키는 용과의 교감 설화는 구례 시인의 감성을 이끌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운흥정의 풍광은 「운흥정상량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중앙에 거실을 꾸미되 먼저 주인과 손님이 읍하고 사양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마루와 기둥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을 하되 봄가을에 글 외우는 자리를 가장 우수하게 꾸몄다. 고기와 용이 밝은 햇빛에 뛰어나오니 재목을

찍고 깎은 소리가 장차 끝나고 제비와 참새가 날아와 하례를 하니 흙 바르는 공사가 이미 새롭네. 천척이나 깊은 못 물속을 굽어보니 아직까지 용이 누워 있고 한 조각 석가래 사이 편액을 우러러 보니 이름하여 가로되, 운흥정이라 하였다. 처마 앞에 지초봉은 책상 앞에 꽃아 있는 붓과 같고 들방 아래 흐르는 월천수는 옷자락이 합한 듯하다.<sup>42)</sup>

운흥정의 규모와 제도는 사치한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하게 하여 칸막음 등은 완고하면서도 정교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구례 시인들은 당시 시모임을 주도하며 풍류와 멋을 교감한 것이다. 또한 정자 주변의 전설을 토대로 그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례군 산동면 상관마을에 있는 方壺亭<sup>43)</sup>을 읊은 노래 등 구례의 정자 및 누각을 중심으로 시회를 형성하여 창작한 노래가 많이 전해진다. 이는 雲興亭詩社(1924)와 方壺詩社(1927) 등으로 모임을 이루어 창작한 것이다. 이들 시인들의 염원은 시사의 모임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구례 시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에서의 만남, 그리고 시적 교류 등은 다양한 시심으로 발현되었다. 따라서 왕성한 시활동과 교감 등으로 당시의 풍류와 멋을 나누었다. 이처럼 한문학의 명맥을 곳곳하게 이어갔으며, 그 정화의 빛을 발한 것이다.

## 5. 맺음말

이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을 고찰

40) “是年春, 訪朴學士海昌於龍城之犬頭山下, 談古道今評山論水信宿, 娓娓之際, 學士以雲興亭詩與文, 示之而徵記焉. …… 每春秋展省之暇, 與洞中諸士友, 永日嘯詠於潭之上, 曠然有沂上蘭亭之趣, 因結社修契, 構成是屋而爲碩人考槃之所, 此真琅環福地也.” (李道復, 『雲興亭記』, 『求禮樓亭集』, 156쪽)

41) 황수정,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경」, 『고시가연구』 23집, 한국고시기문학학회, 2009, 371쪽 참조.

42) “中央, 先設賓主揖讓之所, 軒楹分左右, 優爲春秋絃誦之筵. 魚龍出听斫削之聲, 將畢, 燕雀來賀, 塗墍之工既新, 俯臨千尺潭心, 尙有龍臥, 仰觀一片楯額, 因曰雲興. 簷前芝草之峰, 如正案卓筆. 階下月川之水, 爲橫帶合襟.” (朴海昌, 『雲興亭上梁文』, 『求禮樓亭集』, 159~160쪽)

43) 이곳은 1930년 경에 시회를 주목적으로 건립한 곳이다. 여기에는 40여 수의 현관을 볼 수 있다. 방호정 주변의 풍광과 시회 모임의 소중함을 그리고 있다(『方壺亭誌』 참조).

한 것이다. 이 시기는 민족사에 있어서 대변혁기이고 격변기였다. 이처럼 치열한 시기를 포착하여 당시의 문학적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구례 지역이라는 한 지역을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문학, 즉 한시의 전개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한시사의 일면을 파악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사명과 회한이 담겨 있다. 구례 시인들은 시대에 맞서 강한 사명 의식과 자존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좌절의 시기를 감내해야 했던 문학인의 치열한 시정신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시 속에 시대의 흔들림에 대한 강한 저항정신을 표출하였으며, 때론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며 회한에 빠지기도 하였다. 즉 시대변화와 역사적 고충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지를 되물었으며, 거의 구국운동에 가까운 문집편찬 및 보급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당시 구례 한시인들은 시작활동은 물론이려니와 이러한 문학활동 등으로 민족적 자존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고뇌와 절망, 그리고 극복하고자 하는 강개한 의지와 비장미가 시 속에 투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리적 환경의 수용과 자부가 드러나 있다. 구례는 지리적으로 극한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오히려 시업과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상의 삶을 뛰어넘는 신선적 삶을 지향한 예도 있었다. 이는 예로부터 천혜 자연의 빼어난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의 토산물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자부심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로써 시에 있어서 한적한 낭만과 사실적인 미감을 찾을 수 있었다.

셋째, 문학적 교류를 통한 풍류와 아취가 드러나 있다. 이는 구례의 모습과 구례인들의 삶과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구례 문인들과 타 지역 문인들과의 교류와 지역 시인들 사이의 시적 교감이 전해주는 뜻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례 지역의 아름답고 다양한 모습을 지역인의 초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만남의 자리로 주로 애용되었던 누정 및 정자 등에서 어우러진 구례인의 풍류를 교감할 수 있

었다. 이는 당시 구례 시인들의 활발한 시모임 등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구례의 자연조건과 인간의 어울림으로 인한 멋과 여유로움이 시 속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면, 단순한 지역 문학의 고찰에서 벗어나서 시대와 지리적 여건, 그리고 문학적 교류를 통한 구례 한시의 다양한 양상을 살폈다. 이는 격변기 지식인의 자존 의지와 회한, 시업과 교육에 대한 열의,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식인들 사이의 어울림은 활발한 한시문화로 이어져 詩社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바가 한국 한시의 풍성한 성과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權鳳洙, 『芝村遺稿』  
 王粹煥 選, 『開城家稿』  
 尹鍾均, 『酉堂詩集』, 명문사, 1968.  
 홍영기 편, 『石田 黃瑗 資料集』 I, 順天大學校博物館, 2002.  
 黃 玟, 『梅泉全集』 전5권,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 『黃玟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崔昇孝 編著, 『文墨萃編』 上·下卷, 미래문화사, 1985.  
 金澤榮, 『金澤榮全集』 壹~陸, 아세아문화사, 1978.  
 李建昌, 『明美堂集』 전2권, 한국역대문집총서, 경인문화사, 1995.  
 『求禮樓亭集』  
 『龍湖亭詩稿』  
 『游天王峰聯芳軸』  
 『求禮金石文化』  
 『方壺亭誌』

『求禮郡誌』

강대석,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광사, 2004.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2002.

姜明官, 「전환기 漢詩의 변화-20세기 초기의 한시문학」,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강재언, 『한국근대사』, 한울, 1990.

구사희, 「石亭 李定稷의 詩意識과 文藝論的 特質」, 『한국언어문학』 5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5.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보고사, 1999.

김남기, 「지리산 일대의 문화유적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김우창, 『시인의 보석』, 민음사, 1993.

김정환, 「梅泉詩派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혜숙, 「智異山の 漢詩의 反響」,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박수천, 「智異山の 寺刹 題詠 漢詩」,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박준규,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白琪洙,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成範重, 「蔚山地域 漢詩의 概 양상」,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송재소, 『한시 미학과 역사적 진실』, 창작과비평사, 2001.

심경호, 「조선후기 서울의 遊賞空間과 詩文學」,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呂運弼, 「東萊地域 漢詩의 몇 가지 면모」,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禹應順, 「壬辰亂 前後 서울의 文化空間과 漢詩」,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이병기, 「황매천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83.

李炳基, 『梅泉詩研究』, 보고사, 1995.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_\_\_\_\_, 「일제강점기의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장선희, 「梅月吟社 研究」, 『한국언어문학』 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

鄭良婉, 「梅泉 黃玑의 上元雜詠을 읽고서」, 『雨田辛鎬烈先生 古稀紀念論叢』, 창작과비평사, 1983.

진재교, 「이조후기 문예의 교섭과 공간의 재발견」, 『한문교육학회』 21집, 한문교육학회, 2003.

崔錫起,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지리산유람과 그 성향」, 『한국한문학연구』 26집, 한국한문학회, 2000.

\_\_\_\_\_, 「浮査 成汝信의 智異山遊覽과 仙趣傾向」,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2000.

黃秀貞, 「매천 황현의 문학 연구」, 『19세기 한문학의 재조명』, 한국한문학회 제7차 전국학술대회, 2004.11.27.

\_\_\_\_\_, 「梅泉 黃玑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梅泉詩의 表現樣相」, 『고시가연구』 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

\_\_\_\_\_, 「酉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_\_\_\_\_, 「川社 王錫輔 詩 연구」, 『한문교육연구』 3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_\_\_\_\_,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경」, 『고시가연구』 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투고일 : 2009. 6. 30. 심사일 : 2009. 7. 16. 심사완료일 : 2009. 8. 11.>

## Abstract

Developmental Aspect of Chinese Poetry in Gury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Hwang, Su-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al aspect of Chinese poetry in Gury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t is designed to identify it in a nationwide base instead of local base, which will be a process to acquire a main aspect of Korean Chinese poetr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poetry with historical mission and repentance. Poets in Gurye expressed their mission and self-esteem against historical crises, through which we understood passionate spirit of literary persons who had to endure the period of depression. Because of such circumstances, they felt limited and regretful. Poets of Chinese poetry in Gurye at that time intended to maintain their national pride through literary activities. Such regret and distress were sublimed in their poetry.

Second, we examined poetry where acceptance and pride of its geographical environment were exhibited. Gurye is a jumping-off place in geography, which gave it a chance to encourage literary persons to be engaged in their writing. Rather, there were some cases that hermitic life was pursued. It exhibited the taste of the people who live in superior natural beauty and enhanced the quality of poetry based on acceptance and pride in Chinese poetry.

Third, we speculated poetry where literary exchanges were

shared. Through the poems, we could examine taste and elegance exhibited through exchange of local literary persons with literary persons in other areas. At pavilions and temples which were frequently loved as places of meeting, we could sympathize with graceful taste of people in Gurye. They pursued diversity of writing poetry through organizing various poetry clubs. Thus, this study could identify the aspect of Chinese poetry through various views beyond a simple speculation of local culture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good chance to understand the trends of Chinese poetry in Korea.

Key word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Gurye, mission and repentance, acceptance and pride, graceful elegance and tastefulness, poetry